

## 예종우 회원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

이번에 영예의 동백장을 수상한 예종우 범죄예방위원(협의회감사)는 동백장을 탈 만한 충분한 공적을 갖고 있다. 예종우 감사가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은 지난 81년부터다. 출소자들을 돕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85년에는 갱생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. 사전면담위원회의 고문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그는 봉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아내까지 끌어들이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. 그는 봉사활동의 '부창부수'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.



김정길 법무부장관 예종우 창원지역협의회 감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수하고 있다

▶영예의 '동백장'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예종우 감사 · 감사합니다. 저에게 이러한 큰 상을 준 것은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

▶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텐데요

예종우 감사: 어려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곤해서 지난 81년부터 출소자들을 돕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이십전심으로 작은 정성으로 도와주니까 교화가 잘 되어 보람같은 것을 느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.

■ 회원동정

▶부인까지 범죄예방봉사활동에 끌어들여 많은 일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

예종우 감사 :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는 집사람이라도 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은 창원갱보에서 '갱보부인회'를 만들어 7년간 회장을 맡으면서 합동결혼식이나 음식준비를 하면서 매월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. 이밖에도 매월 교도소를 방문하여 모범수와 결연을 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

▶장학금과 불우이웃에게 익명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

예종우 감사 : 한국재단에서 위촉해주는 학생 20명을 매년 익명으로 뒷바라지 해주고 불우한 소녀들에게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
▶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.

예종우 감사 . 매달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의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급식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꿈이며 계획입니다.

▶끝으로 범죄예방위원들에게 하고싶은 말씀이 있을텐데요

예종우 감사 : 전부가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회비 한번 내고 사명을 다한 것인양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않아 있는데 이는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. 범죄예방위원들은 모두가 몸소 실천하는 봉사를 해야지 돈만으로 한 다든가 입으로만 해서는 안됩니다.

(예종우 감사는 창원에서 20여년간 덕수당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신문이나 매스컴에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는 딱한 기사가 나오면 남이 모르게 익명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있다.)